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
—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

이 문 규

전북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Astronomical Records and Interpretations of the Solar and
the Lunar Phenomena in the *Jinshu*

YI Moon Kyu

Science Culture Research Cent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Tianwenzi*(天文志) of the *Jinshu*(晉書) has two parts: one explaining the Chinese astronomical theory, and the other recording the historical cases of the astronomical phenomena. In this paper I analyze the latter part, titled *Shichuanshiyan*(史傳事驗), the historical records of celestial changes and predictions, particularly the cases concerning the sun and the moon. I will show that the Chinese bureaucra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astronomy, the so-called *tianwenjia*(天文家), used the astronomical phenomena in showing their expertise and rationalizing their position in the government: they recorded the details of celestial phenomena and interpreted them as signs of important political events on the earth.

The solar and lunar cases in the *Tianwenzi* of the *Jinshu* show five important features. First, it followed the ancient tradition of Chinese astronomy regarding the solar eclipse as the most important phenomenon. The recorded solar eclipses in the *Jinshu* amount to 80, approximately once in every 2.51 years. Thanks to the

accurate astronomical knowledge, the solar eclipses occurring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increased to 81.3%. Second, most of the solar eclipses were interpreted as signs of events with direct effects on the sovereigns. Such tendency was not new, but it became more frequent than before. Third, the *Jinshu* began to show much interest in new kinds of phenomena, such as *shihui*(十輝, ten haloes) and lunar trespasses of the five planets or various constellations. Fourth, the *fenye*(分野, field allocations) theory, which had been the main theoretical tool for the interpretation of celestial phenomena, continued to be applied to the lunar phenomena, but the theory was hardly ever applied to the solar phenomena. Fifth, the general astronomical theory worked well for the solar eclipses and the lunar trespasses of the Jupiter, but not for the other celestial phenomena.

Key Words : *Jinshu*, *Tianwenzi*, *Shichuanshiyan*, Astronomy, Sun, Moon, Solar Eclipse

1. 『晉書』 「天文志」와 史傳事驗

『진서』 「천문지」는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의 가장 모범적인 체계를 제시한 문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¹⁾ 당대(唐代) 이순풍(李淳風, 602-670)이 편찬한 『진서』 「천문지」는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늘의 세계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독특한 설명방식을 종합 정리한 천문 이론 부분으로, 천체(天體), 의상(儀象), 천문경성(天文經星), 중궁(中宮), 28사(二十八舍), 28수외성(二十八宿外星), 천한기몰(天漢起沒), 12차도수(十二次度數), 주군전차(州郡躔次), 칠요(七曜), 잡성기(雜星氣) 등 11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으로 ① 개천설, 혼천설, 선야설 등으로 대표되는 고대 중국의 천체구조 이론, ② 해, 달, 오행성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행하는 천체와 28수를 비롯한 여러 별자리 체계에 대한 설명, ③ 하늘과 땅의 공간적 대응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른바 분야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을

1)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에서 『晉書』 「天文志」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Ho Peng Yoke, *The Astronomical Chapters of the Chin Shu* (Paris, 1966), 13-41쪽의 "Introduction" 부분과 戴內清, "中國科學의傳統と特色", 戴內清 編, 『中國の科學』 (中央公論社, 1979), 55-76쪽을 참고할 것.

바로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²⁾ 다른 하나는 ‘사전사험(史傳事驗)’으로 이름 붙여진 『진서』 「천문지」의 마지막 항목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사전사험’이란 역사의 기록으로 전하는 천문 현상을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증험(證驗)한다는 뜻인데, 그 안에는 하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천문 현상을 땅 위의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한 사례가 유형별로 나뉘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문 현상에 관한 일종의 사례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사험’ 부분이다. 지금까지 천문 이론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³⁾ 사전사험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사전사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관심이 “하늘 그 자체만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방편이었다”⁴⁾라는 점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진서』 「천문지」의 천문 이론 부분은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짓는 방식을 설명해주고, 사전사험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연결이 실제로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전사험 부분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하늘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또는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서』 「천문지」의 천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은 해와 달에 관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와 달은 하늘에 있는 여러 천체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며, 고대 중국인들 역시 해와 달, 특히 해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천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해와 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진서』 「천문지」의 사전사험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부터 사전사험에 들어 있는 해에 관한 현상과 달에 관

2)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예로 朝鮮 초의 석각천문도인 天象列次分野之圖의 圖說에 담겨 있는 천문학 지식도 기본적으로 『晉書』 「天文志」의 것과 같으며, 특히 ‘論天’ 부분에는 직접 『晉書』 「天文志」가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3) 대표적인 것으로 橋本敬造, 『中國占星術の世界』 (東方書店, 1993); 江曉原, 『天學眞原』 (遼寧教育出版社, 1991)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晉書』 「天文志」에서 제시된 중국 천문학의 기본틀은 戴內清, 『中國의天文曆法』 (平凡社, 1969)이나 中國天文學史整理研究小組 編, 『中國天文學史』 (科學出版社, 1981)와 같이 중국 천문학사에 대한 뛰어난 연구서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4)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352쪽.

한 현상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인데, 이 작업은 이미 필자가 검토한 바 있는 춘추시대부터 한대까지의 천문 사례에 대한 분석⁵⁾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즉, 『진서』 「천문지」의 천문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그것이 그 전의 천문 사례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로써 『진서』 「천문지」의 천문 사례에 나타난 특징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일식 사례의 변화와 특징

(1) 일식 기록의 변화

일식은 고대 중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가장 대표적인 천문 현상으로 그에 관한 기록 역시 많이 남아 있다. 일식 기록은 은주 시대의 갑골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춘추』에도 37번이나 들어 있다. 그렇지만 전국시대와 진(秦) 시기의 일식 기록은 춘추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⁶⁾ 이렇게 된 까닭은 먼저 당시 일식 기록을 전하고 있는 『사기』가 기본적으로 천문 현상을 자세히 기록하는 데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전쟁 등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천문 현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이었다.⁷⁾

한대 이후 일식은 정사(正史)의 천문 관련 ‘지(志)’ 등에 매우 꼼꼼히 기록되기 시작했다. 예외적으로 『사기』 「천관서」는 실제 발생했던 천문 현상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발생한 천문 현상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대의 모든 일식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서』는 본격적으로 일식 및 혜성의 출현, 행성의 움직임, 각종 별과 별자리의 변화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기』의 일식 기록에서 빠진 것을 포함하여 한대에 발생했던 대부분의 일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런 전통이 『후한서』를 거쳐 『진서』까지 이어졌다.

5)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제3장 천문의 역사적 사례.

6) 春秋 시기에는 242년 동안 일식이 37번 기록된 것에 비해, 戰國 시기에는 234년 동안 겨우 9번의 일식만이 기록되었으며, 秦의 40년 동안에는 일식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

7)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이하 正史는 모두 같은 판본에서 인용한다) 「天官書」, 1344쪽의 “近世十二諸侯七國相王 言從衡者繼踵 而臯唐甘石因時務論其書傳 故其占驗凌雜米鹽”, 또는 1347쪽의 “及秦并吞三晉燕代 … 諸侯更彊 時蕃異記 無可錄者”라는 司馬遷의 지적은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은 총 80번에 달한다. 그것을 그 전의 일식 기록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한 눈에도 일식 기록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표 1> 史書의 일식 기록 비교

	『前漢書』 『天文志』	『史記』	『漢書』 『五行志』	『後漢書』 『五行志』	『晉書』 『天文志』
시 기	기원전 722 -481	기원전 206 -141**	기원전 206- 기원후 5	기원후 25 -220****	기원후 220-420
횟수(번)	37	8***	54	72	80
빈 도 (년/1번)	6.54	8.25	3.91	2.72	2.51

- * 『史記』 『天官書』에는 일식 기록이 따로 모아져 있지 않다. 따라서 ‘本紀’ 등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헤아린다.
- ** 『史記』는 武帝 天漢(기원전 100-97)연간까지의 기록이지만, 일식은 景帝(기원전 156-141)시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 *** 『史記』에는 모두 9번의 일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文帝 2년(기원전 178) 12월의 일식은 보름에 일어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잘못된 기록이므로 제외한다.
- **** 『後漢書』 『五行志』는 劉嬰(6-8), 王莽(9-24), 劉玄(23-25)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 光武帝부터 시작하고 있다.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은 진(西晉 265-316, 東晉 317-420) 시기뿐 아니라, 삼국시대 위(魏, 220-265)의 일식 현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앞의 <표 1>의 네번째 설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후한서』의 일식 기록이 『한서』 이후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20여 년의 기간을 빼버리고 후한 광무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진서』 『천문지』가 위 시기의 일식 기록을 포함시킨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물론 『진서』는 진의 통일을 이룩한 세조 무제 사마염(司馬炎)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인 사마의(司馬懿)와 사마의의 장자인 사마사(司馬師), 사마사의 동생이자 사마염의 아버지가 되는 사마소(司馬昭)를 추존(追尊)하여 각기 고조(高祖) 선제(宣帝), 세종(世宗) 경제(景帝), 태조(太祖) 문제(文帝)로 칭하고 ‘제기(帝紀)’의 첫부분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에 사마의가 활동했던 위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진서』 『천문지』의 첫머리를 살펴보면, 『진서』 『천문지』에서 위 시기

의 일식까지 포함시킨 보다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옛날 包犧씨가 있어 [하늘의] 象을 보고 [땅의] 法을 살펴 神明의 德에 통하고 天地의 實情을 구분함으로써, 지나간 일을 갈무리하고 다가올 일을 알 수 있었으며 만물이 [비로소] 시작되고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 漢의 景帝, 武帝 때에 이르러 司馬談 부자가 [代]를 이어 史官이 되어 ‘天官書’를 저술해서 天人の 道를 밝혔다. 그 후 中壘校尉 劉向이 ‘洪範’의 災異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여 ‘皇極論’을 지어서 지난 시기에 행해진 일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班固가 漢의 역사를 기록할 때 馬續이 ‘天文’ 부분을 서술하였으며, 蔡邕와 譙周가 각기 기록하여 편찬한 것이 있었으니 司馬彪가 그것을 모아서 앞에 있었던 [천문 관련] ‘志’를 계승하였다. 이제 [천문에 관한] 여러 설명들을 상세히 살펴 이 篇을 짓는다.⁸⁾

앞의 인용문에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까지를 참고할 때, 이것의 주된 목적은 천문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천문가(天文家)’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서』 ‘천문지’가 위 시기의 일식 기록까지 포함하게 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진서』 ‘천문지’가 직접적으로 『후한서』의 뒤를 잇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진서』는 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천문에 관한 부분 만큼은 『후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식 기록 역시 『후한서』의 기록이 끝난 직후인 삼국시대에 발생한 일식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진서』 ‘천문지’가 『사기』 ‘천관서’, 『한서』와 『후한서』의 ‘천문지’ 및 ‘오행지’⁹⁾로 이어지는 고대 중국의 천문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볼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천문지’와 ‘오행지’의 관계이다. 『사기』의 경우 천문에 관한 일은 모두 ‘천관서’에서 다뤘으며, 천문 현상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서』와 『후한서』에서 천문 현상을 ‘천문지’와 ‘오행지’에 나누어 기록했다는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행지’란 오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비롯하여 오행과 관련하여 당시 재이로 받아들여졌던 세상의 온갖 괴이한 일이나 자연 현상에 관한 사례 및 그에 대한 해석을 모아 놓은 곳으로, 주로 지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들어 있다.¹⁰⁾ 그

8) 『晉書』 ‘天文志’, 277-278쪽, “昔在包犧 觀象察法 以通神明之德 以類天地之情 可以藏往知來 開物成務. [……] 及漢景武之際 司馬談父子繼爲史官 著天官書 以明天人之道. 其後中壘校尉劉向 廣洪範災條 作皇極論 以參往之行事. 及班固敘漢史 馬續述天文 而蔡邕譙周各有撰錄 司馬彪採之 以繼前志. 今詳衆說 以著于篇”.

9) 劉向의 ‘皇極論’이란 ‘洪範五行傳’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漢書』 ‘五行志’에 실려 있다. 따라서 『皇極論』은 『漢書』 ‘五行志’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물론 ‘五行志’에서 지상의 현상만을 다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史記』 ‘天官書’, 1342쪽, “天有

럼에도 불구하고 『한서』는 주로 행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몇몇 천문 현상만을 「천문지」에 기록하고, 일식을 비롯해서 일월변(日月變), 성운, 혜성, 운석 등의 현상은 「오행지」에 기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¹¹⁾ 『후한서』는 기본적으로 『한서』의 예를 따랐다. 그렇지만 혜성, 성운, 운석의 기록을 「천문지」로 옮기고 「오행지」에서는 해에 관한 현상만을 다루었다. 만약 『진서』가 『한서』 및 『후한서』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려 했다면, 일식은 당연히 「오행지」에서 다뤄야 했다. 그러나 『진서』는 일식을 「천문지」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서』는 땅 위에서 벌어지는 재이 현상은 「오행지」에서 취급하고,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천문지」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차이 이외에도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은 그 전의 일식 기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먼저 일식이 일어난 날이 초하루인가 그믐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에 주목해 보자(뒤의 표 2 참조). 일식이 일어난 날의 회삭(晦朔)을 밝히는 것은 『춘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오랜 전통으로, 『한서』와 『후한서』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서』 「천문지」에서 회삭을 표시한 것이 특별히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에서 일식이 초하루에 일어난 경우는 65번, 그믐에 일어난 경우는 7번, 회삭을 말하지 않은 경우는 8번이다. 일식이 초하루에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81.3%에 달하여 대부분의 일식이 초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한서』와 『후한서』의 초하루 일식이 각각 25.9%(54번의 일식 중 초하루 14번, 그믐 37번, 그믐 하루 전 3번),¹²⁾ 44.4%(72번의 일식 중 초하루 32번, 그믐 37번, 2일 3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대부분의 일식이 초하루에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 사용되었던 역법이 해와 달의 운동을 정확히 계산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역법은 후한말 유홍(劉洪)의 건상력(乾象曆)에 기초하여 양위(楊偉)가 만든 경초력(景初曆)으로, 특히 일식 계산에

五星 地有五行"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대체적으로 하늘에 관한 것은 「天文志」에 땅에 관한 것은 「五行志」에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다.

- 11) 『漢書』에서 일식 등의 천문 현상을 「五行志」에 기록한 까닭은 일식 기록이나 해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史記』 「天官書」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천문 사례를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고 일식을 중시한 『春秋』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94-196쪽.
- 12) 『漢書』 「五行志」, 1506쪽에서는 "凡漢著紀十二世 二百十二年 日食五十三 朔十四 晦三十六 先晦一日三"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기록되어 있는 일식은 총 54번이고 그 가운데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난 경우가 14번, 그믐에 일어난 것이 37번이다.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84쪽.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따라서 초하루 일식의 비율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¹⁴⁾

이어서 일식이 일어난 날의 회삭을 밝히지 않은 8번의 경우 중 특별한 설명을 찾지 못한 목제 영화 8년 정월의 일식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도 하나씩 검토해 보자. 먼저 목제 영화 7년 정월의 일식은 초하루임에도 삭(朔)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朔’이란 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러나 무제 태시 10년 1월과 3월의 경우, 일식이 일어난 날의 간지가 을미(乙未)와 계해(癸亥)로 그 달의 초이튿에 해당한다.¹⁶⁾ 그리고 혜제 영강 원년 정월, 목제 영화 2년 4월의 경우, 일식이 일어난 날의 간지는 각각 을묘(己卯)와 기유(己酉)로 17일과 16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간지를 잘못 기록하였거나 또는 월식의 착오일 것으로 보인다.¹⁷⁾ 민제 건흥 5년 5월과 11월의 경우, 일식이 일어난 날을 병자(丙子)라고 밝혔지만 5월에는 아예 병자일이 없고 11월의 병자일은 28일이니 ‘丙子’는 잘못된 기록이다.¹⁸⁾ 이런 예를 종합해 볼 때, 『진서』 「천문지」는 일식이 초하루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서』는 진이 망한 후 200여 년이 더 지나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기록이 잘못 전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한서』와 『후한서』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서』와 『후한서』에서는 초하루가 아닌 날에 발생한 일식에 대해 초이튿 또는 그믐 하루 전날이라고 그것이 일어난 날짜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사관(史官)이 직접 보지 못해서 전해 들은 일식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진서』 「천문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회삭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드러냈지만, 일식이 회삭이 아닌 날짜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3) 戴內清, 『中國の天文曆法』, 79쪽, 한편, 景初曆은 魏 明帝 景初 元年(237)년 사용되기 시작하여 西晉 武帝 泰始 元年(265)에 泰始曆으로 바뀌었지만(『晉書』 「律曆志」, 503쪽),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제 역법의 내용은 같다.

14) 景初曆이 사용되었던 魏 明帝 景初 이후 晉末까지(237-420)의 일식만을 대상으로 하면 초하루 일식의 비율은 89%로 더욱 높아진다. 이런 점은 이미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發展史』 魏晉南北朝篇 (人民出版社, 1988), 721쪽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제시된 수치는 조금 차이가 난다.

15) 『晉書』 「穆帝紀」, 217쪽, 校勘記 [12]. 이에 따르면 『宋書』 「五行志」와 같이 “丁酉朔”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옳다고 한다.

16) 北京天文臺 主編, 『中國古代天象記錄總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146쪽.

17) 北京天文臺 主編, 『中國古代天象記錄總集』, 148, 150쪽.

18) 『晉書』 「天文志」, 357쪽, 校勘記 [18]. 특히 11월의 경우, 『晉書』 「孝愍帝紀」, 142쪽의 校勘記 [47]에는 『通鑑』을 인용하여 그 달 己酉朔에 일식이 있었다고 밝혀 놓기도 했다.

(2) 일식 해석의 특징

고대 중국인들에게 일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식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한 의미란 주로 사람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중요한 사건을 예고해 준다는 믿음을 말하는데, 고대 중국인들이 애초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춘추』의 일식 기사를 보면, 『춘추』에 실린 37번의 일식 가운데 34번은 일식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기록하였으며, 단지 3번의 경우만이 일식이 일어나서 사(社)에서 북을 치거나 제물을 바쳤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¹⁹⁾ 당시 일식이 꼼꼼히 기록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일식이 장차 발생할 어떤 사건을 예고해 준다고 믿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사기』에서도 이런 믿음을 직접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기』에서 일식을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지어 설명한 유일한 사례인 여태후 때 발생한 일식에 대해 「천관서」는 “여씨 무리들이 난을 일으켰고, 일식이 일어나서 낮에도 어두웠다”²⁰⁾고 하였을 뿐, 일식을 직접 여씨 무리들이 난을 일으킬 조짐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일식을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직접적인 예고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한서』 이후이다. 그 첫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高帝 3년 10월 甲戌일 그믐. 일식. [해는] 斗宿 20도에 있었으니, 燕의 땅[에 해당한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燕王 臧荼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주살하였다. [새로이] 盧縮을 燕王으로 세웠는데, 후에 또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였다.²¹⁾

이 일식을 연(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지은 것은 분야설을 적용한 결과이다. 비록 이 사례에서는 분야설이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²²⁾ 처음으로 일식이 일어날 때의

19) 『春秋』(十三經注疏本 『春秋左傳』), 1778쪽, 莊公 25年, “六月辛未朔 日有食之. 鼓用牲于社”; 1782쪽, 莊公 30年, “九月庚午朔 日有食之. 鼓用牲于社”; 1854쪽, 文公 15年, “六月辛丑朔 日有食之. 鼓用牲于社”.

20) 『史記』 「天官書」, 1348쪽, “諸呂作亂 日蝕 晝晦”.

21) 『漢書』 「五行志」, 1500쪽, “高帝三年十月甲戌晦 日有食之 在斗二十度 燕地也. 後二年 燕王臧荼反 誅 立盧縮爲燕王 後又反 敗”.

22) 斗宿은 『漢書』 「天文志」에 실려 있는 분야설을 따르면 長江과 太湖 일대이며, 『漢書』 「地理志」의 분야설을 따르면 吳나라 지역이다. 燕나라와 관련짓기 위해서는 尾宿나 箕宿이어야 맞다. 당시 행해졌던 분야설에 대해서는 李文撰, “중국 고대 分野說의 성립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1권 제2호(1999), 221-238쪽을 참고할 것.

해의 위치를 표시한 것도 분야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²³⁾ 이렇게 하여 일식을 2년 후 연(燕) 지역에서 발생할 두 차례의 연속된 반란의 조짐으로 해석하였다. 이 밖에 『한서』에서 일식을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예고로 해석된 경우를 살펴보면, 황제의 죽음, 반란, 황후의 죽음이나 폐위, 대신의 죽음 등이 있다.²⁴⁾ 한편, 『한서』에서 일식을 특정한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한 예는 전체 54번의 일식 가운데 9번(16.7%)에 불과하다. 『한서』까지도 대부분의 일식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조짐으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이에 비해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식은 전체 72번 가운데 44번(61.1%)이나 특정한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되었다. 특히 영제(靈帝) 이후를 제외한,²⁵⁾ 광무제(光武帝)부터 환제(桓帝)까지 발생했던 일식은 대부분 구체적 사건이 발생할 징조로 해석되었다.²⁶⁾ 그 가운데 두 가지 사례만 예를 들어 보자. 먼저 광무제 건무(建武) 3년 5월에 일어난 일식은 『한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해석되었다. 즉, 해가 유(柳)수 14도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났는데, 유수는 분야설에 따라 하남(河南)에 해당한다. 당시 광무제가 하남의 낙양(雒陽)에 있었고, 이미 항복했던 적미(赤眉)의 번숭(樊崇)이 다시 난을 일으킬 것을 꾀하다가 그해 7월 발각되어 모두 굴복했거나 주살 당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한서』의 경우와 다르게 해석되었다.

安帝 永初 원년 3월 2일 癸酉일. 일식. [해는] 胃宿 2도에 있었다. 胃수는 공간을 주관한다. 이 때 鄧太后가 정치를 마음대로 하였는데, 지난 해 큰 흉수가 나서 곡식이 [많이] 상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공간이 텅비었다.²⁸⁾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식이 일어난 위(胃)수에 대한 해석이다. 위수를 분야설에 따라

23) 반대로 일식이 일어날 때의 해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분야설의 적용이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4) 자세한 내용은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186-191쪽을 참고할 것.

25) 이 시기에 발생한 일식은 모두 22번인데, 단지 4번의 일식만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後漢書』의 일식 기록이 靈帝 이후 갑자기 변하게 된 배경을 後漢末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시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

26) 구체적 사건이 발생할 조짐으로 해석되지 않았던 사례는 주로 천문에 관한 일을 맡은 史官이 일식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경우이다.

27) 『後漢書』 「五行志」, 3358쪽, “[光武帝 建武]三年五月乙卯晦 日有蝕之 在柳十四度. 柳 河南也. 時世祖在雒陽 赤眉降賊樊崇謀作亂 其七月發覺 皆伏誅”.

28) 『後漢書』 「五行志」, 3363쪽, “安帝永初元年三月二日癸酉. 日有蝕之 在胃二度. 胃主廩倉. 是時鄧太后專政 去年大水傷稼 倉廩爲虛”.

해석하면 서주(徐州)나 노(魯) 지역의 사건과 관련지어야 한다. 하지만 위수는 분야설이 아닌, 그 별자리가 가진 상징관계 즉, “위수는 공간을 주관한다”는 이론에 따라 홍수로 인하여 공간이 텅 비게 된 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후한서』의 일식에 대한 해석은 분야설을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일식이 일어날 때 해가 위치하고 있는 28수가 가진 상징관계에 따라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일식이 예고하는 사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²⁹⁾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은 아래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80번 가운데 25번(31.3%)의 일식을 구체적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위(魏)의 기록을 제외하고 진(晉)의 일식만을 따지면 그 비율은 41.7%로 훨씬 높아진다. 물론 이 비율은 『한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후한서』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일식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를 통해 예고된 사건의 유형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먼저 『진서』 「천문지」의 일식 해석에서 분야설의 적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진서』 「천문지」의 일식 사례에서 명백하게 분야설이 적용된 경우는 명제 태녕 3년의 일식과 목제 영화 12년의 일식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즉, 앞의 경우는 일식이 해가 두(斗)수에 있을 때 일어났으므로, 분야설에 따라 두수에 해당하는 오(吳) 지역에서 3년 후 일어난 소준(蘇峻)의 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뒤의 경우는 일식이 해가 미(尾)수에 있을 때 일어났으므로, 미수에 해당하는 연(燕) 지역인 북쪽의 변방에서 요양(姚襄)과 부생(苻生)이 자주 싸움을 일으켜 정벌이 끊이지 않았던 일로 해석되었다. 『진서』 「천문지」의 앞 부분 즉,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을 밝히고 있는 부분에 분야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식 사례에서는 분야설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의 대부분이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해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분야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식이 일어날 때의 해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진서』 「천문지」에서 해의 위치를 밝힌 것은 앞의 두 사례를 포함해서 겨우 4번에 지나지 않는다(표 2의 비교란 참조). 왜 『진서』 「천문지」는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해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것일까? 『후한서』의 일식 기록이 분야설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해의 정확한 위치를 밝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³⁰⁾ 『진서』 「천문지」에서 해의 위치를 굳이 밝히지 않았다

29) 예를 들어 光武帝 때의 일식만 살펴봐도 28宿의 상징에 따라 해석된 사례는 畢-邊兵, 昴-獄事, 胃-廩倉(공간), 興鬼-宗廟, 東壁-文章, 斗-廟, 爵祿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30) 光武帝부터 桓帝까지 발생했던 일식은 史官이 직접 보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해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표 2> 『晉書』 「天文志」의 일식 기록

번호	연대	연월일	현상	일식	비고
1	魏 文帝	黃初 2-6	晦	221	詔曰...
2		3-1	朔	222	
3		3-11	晦		
4		5-11	晦	224	
5	明帝	太和 5-11	晦	231	太和初 日食에 대해 帝曰 ...
6		6-1	朔	232	
7		靑龍 1-閏	朔	233	吳曆 참조
8	少帝	正始 1-7	朔	240	
9		3-4	朔	242	
10		4-5	朔	243	
11		5-4	朔	244	
12		6-4	朔	245	
13		6-10	朔		
14		8-2	朔	247	詔, 蔣濟上疏曰...
15		9-1	朔	248	
16		嘉平 1-2	朔	249	
17	高貴鄉公	甘露 4-7	朔	259	
18		5-1	朔	260	成濟之變 京房 『易占』曰...
19	元帝	景元 2-5	朔	261	
20		3-11	朔	262	
21	西晉 武帝	泰始 2-7	晦	266	
22		2-10	朔		
23		7-10	朔	271	
24		8-10	朔	272	
25		9-4	朔	273	
26		9-7	朔		
27		10-1		274	
28		10-3			
29		咸寧 1-7	晦	275	
30		3-1	朔	277	
31		4-1	朔	278	
32		太康 4-3	朔	283	
33		7-1	朔	286	
34		8-1	朔	287	
35		9-1	朔	288	帝崩(永熙元年4月庚申)
36		9-6	朔		
37	惠帝	元康 9-11	朔	299	皇太子 廢位, 尋殺
38		永康 1-1		300	
39		1-4	朔		
40		永寧 1-閏	朔	301	

				사건	비고
41		光熙 1-1	朔	306	帝崩(11月)
42		1-7	朔		
43		1-12	朔		
44	懷帝	永嘉 1-11	朔	307	
45		2-1	朔	308	
46		6-2	朔	312	
47	愍帝	建興 4-6	朔	316	
48		4-12	朔		
49		5-5		317	帝 平陽으로 蒙塵
50		5-11			
51	東晉 元帝	太興 1-4	朔	318	
52	明帝	太寧 3-11	朔	325	蘇峻 作亂 [日]在卯至斗
53	成帝	咸和 2-5	朔	327	皇太后以憂崩(明年) [日]在井
54		6-3	朔	331	君德이 이지러짐
55		9-10	朔	334	君道가 이지러짐
56		咸康 1-10	朔	335	
57		7-2	朔	341	杜皇后崩(3月)
58		8-1	朔	342	京都大雨, 帝崩(6月)
59	穆帝	永和 2-4		346	
60		7-1		351	
61		8-1		352	
62		12-10	朔	356	征伐不止 [日]在尾
63		升平 4-8	朔	360	帝崩(明年) [日]在角
64	哀帝	隆和 1-3	朔	362	帝 疾로 不識萬機 (明年)
65		1-12	朔		
66	海西公	太和 3-3	朔	368	海西 被廢
67		5-7	朔	370	
68	孝武帝	寧康 3-10	朔	375	
69		太元 4-閏	朔	379	符堅攻沒襄陽, 執朱序
70		6-6	朔	381	
71		9-10	朔	384	
72		17-5	朔	392	
73		20-3	朔	395	帝崩(明年)
74	安帝	隆安 4-6	朔	400	元顯 執政
75		元興 2-4	朔	403	桓玄 篡位
76		義熙 3-7	朔	407	日蝕皆從上始 → 革命
77		10-9	朔	414	
78		11-7	晦	415	
79		13-1	朔	417	
80	恭帝	元熙 1-11	朔	419	

는 사실은 특별한 까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시 해의 운행에 대한 지식은 해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만약 분야설을 적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와 같이 당연히 해의 위치를 밝혔을 것이다. 결국 『진서』 「천문지」에서 해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분야설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진서』 「천문지」는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해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야설뿐만 아니라, 28수가 가진 상징관계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진서』 「천문지」의 일식 해석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일식으로 설명되었던 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자(괄호 안은 <표 2>의 일식 번호임). 첫번째는 일식이 직접 황제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경우로 8번의 일식을 통해 무제(35-36), 혜제(41-42), 성제(58), 목제(63), 효무제(73), 안제(79) 등 황제 6명의 죽음이 예고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번째는 황제가 일신상의 이유나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예로 폐제(廢帝)로 알려진 해서공 사마연(司馬燮)의 폐위(66-67), 서진의 멸망으로 이어진 민제의 몽진(49-50), 동진의 멸망을 뜻하는 공제 때의 유유(劉裕)의 혁명(80)³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황제의 죽음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밖에 애제가 심각한 질병으로 황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일(64-65), 성제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정권을 장악해서 황제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54, 55), 안제 때 황족이었던 사마원현(司馬元顯) 부자의 집권(74)과 계속해서 환현(桓玄)이 반란을 일으켜 제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던 일(75) 등도 황제가 매우 곤란에 처했던 상황이다. 세번째는 일식이 반란이나 전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 경우로, 성제의 변(成濟之變, 18), 소준의 난(52), 북방의 잦은 정벌(62), 전진왕(前秦王) 부견(苻堅)의 반란(69) 등이 일식으로 예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식이 황제 주변 인물의 신상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된 경우로, 이른바 ‘팔왕(八王)의 난’의 혼란 속에서 혜제의 황태자 사마훈(司馬懿)이 폐위당하고 마침내 살해된 사건(37), 성제 때 황태후 유(庾)씨와 황후 두(杜)씨의 죽음(53, 57)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서』 「천문지」의 일식은 주로 군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즉, 일식은 곧 군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일식을 군주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관념은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일종의 ‘믿음’

31) 특히 이 예는 5차례의 일식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일식은 모두 해의 윗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혁명의 조짐이라고 풀이하였다. 『晉書』 「天文志」, 341쪽.

이었다.³²⁾ 하지만 일식을 전면적이고 본격적으로 군주에게 발생할 중요한 사건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진서』 「천문지」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진서』 「천문지」에서 밝힌 해에 관한 일반적 설명과도 잘 들어맞는다.

해는 太陽의 精이고, [사람 또는 만물의] 生養과 恩德을 주관하며 人君의 象이다. [만약] 人君에게 흠이 있으면 [해는] 반드시 그 재앙을 드러내어 알려준다. 따라서 해와 달은 道가 행해지는 나라에 밝고 환하며 人君이 길하고 창성하고 백성이 안녕하다. …… 일식은 陰이 陽을 침범하는 것이나 신하가 군주의 象을 가리는 것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다.³³⁾

이처럼 『진서』 「천문지」는 해를 직접 군주의 모습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일식이란 직접 군주로 상징되는 해 자체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서』 「천문지」의 일식 기록에서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해의 위치를 말하지 않은 것도, 일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현상이었지 그것이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 해의 또 다른 변화 十輝

『진서』 「천문지」는 십휘(十輝)를 일식과 더불어 해에 관한 중요한 현상으로 꼽고 있다. 십휘란 본래 『주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침(侵), 상(象), 휴(觸), 감(監), 암(闇), 몽(瞢), 미(彌), 서(序), 제(濟), 상(想)의 열 가지 현상을 말하는데, 그에 따르면 저침씨(低祿氏)가 십휘의 범을 장악해서 요망함과 상서로움을 보고 길흉을 판단했다고 한다.³⁴⁾ 『진서』 「천문지」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십휘의 이름도 바뀌었고 그에 대한 설명 역시 일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³⁵⁾ 일식 사례에 뒤이어 십휘에 관한 사례를 충실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십휘

32) 예를 들어 『春秋左傳』, 1855쪽, 文公15年 또는 2082쪽, 昭公17年의 “日有食之 天子不舉 伐鼓於社 諸侯用幣於社 伐鼓於朝 禮也”는 일식이 일어났을 때 군주가 행해야 되는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식과 군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33) 『晉書』 「天文志」, 317쪽, “日爲太陽之精 主生養恩德 人君之象也. 人君有瑕 必露其慝以告示焉. … 日蝕 陰侵陽 臣掩君之象 有亡國”.

34) 이 내용은 본래 『周禮』(十三經注疏本 『周禮注疏』) 卷25 「春官·目氏祿」, 170쪽에 들어 있는데, 『晉書』 「天文志」, 330쪽과 341-342쪽에 인용되어 있다.

35) 『晉書』 「天文志」, 342쪽, “後代名變 說者莫同”.

에 관한 사례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진서』 「천문지」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총 53번에 달하는 『진서』 「천문지」의 십휘에 관한 사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현상은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백홍관일(白虹貫日), 햇무리(日暈), 그리고 해에 검은 것(黑氣 또는 黑子)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가운데 먼저 백홍관일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백홍관일은 단독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³⁶⁾ 햇무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³⁷⁾ 백홍관일이 나타나면 “가까운 신하가 난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후 가운데 반란을 꾀하는 자가 있을”³⁸⁾ 조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제 때의 사례는 백홍관일이 나타나고 얼마 안되어 환현(桓玄)이 수도를 함락시키고 다음 해에 제위를 찬탈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제 때 3년 연속으로 나타난 백홍관일은 당시 황태후였던 유(庾)씨와 그 일족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의 징조로 해석되었다. 또한 오나라 손권(孫權) 때 백홍관일이 나타나자 손권이 조(詔)를 내려 삼가 근신할 것을 명하였다는 사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백홍관일과 햇무리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도 유사한 조짐으로 해석되었다. 회제 때 백홍관일이 청황(靑黃)의 다섯 겹의 햇무리와 함께 나타난 현상은, 다음 해 동해왕(東海王) 사마월(司馬越)이 황제를 완전히 멸시했던 일과 3년 후 전조(前趙)의 유충(劉聰)이 수도를 함락시켜 황제가 적의 지역으로 몽진을 가게 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해서공 때의 사례 또한 백홍관일이 다섯 겹의 햇무리와 함께 나타났으며, 8개월 뒤 환온(桓溫)이 황제를 폐위한 사건이 발생할 조짐으로 해석되었다.

햇무리는 해 주위에 기(氣)가 있어서 등글게 주위를 빙 둘러싸는 모습으로 안쪽은 붉고 바깥쪽은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³⁹⁾ 햇무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백홍관일 등의 다른 현상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햇무리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햇무리 현상이 단독으로 나타나 구체적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된 경우는 안제 때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햇무리가 나타나 띠 모양(璣)을 이룬 현상이 두 차례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마원현(司馬元顯)이 권력과 형벌을 휘어잡게 된 일과 노순(盧循)이 수도를 위협하자 안팎의 경계

36) 吳 孫權 赤烏 11년 2월; 懷帝 永嘉 2년 정월; 明帝 太寧 원년 11월; 成帝 咸和 9년 7월; 成帝 咸康 원년 7월; 成帝 咸康 2년 7월; 安帝 元興 원년 3월.

37) 武帝 泰始 5년 7월; 懷帝 永嘉 2년 2월; 海西公 太和 4년 4월; 海西公 太和 6년 3월; 安帝 元興 원년 2월.

38) 『晉書』 「天文志」, 343쪽, “白虹貫日 近臣爲亂 不則諸侯有反者”.

39) 『晉書』 「天文志」, 332쪽, “日傍有氣 員而周帀 內赤外青 名爲暈”.

를 튼튼히 하여 마침내 노순이 패주하게 된 일로 해석되었다. 햇무리 역시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조짐으로 해석되었지만, 그 정도는 일식에 비해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명제 때에 사례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즉, 당시 나타난 햇무리는 빛나지 않았으며, 14일 후에는 황색의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다고 한다. 이 현상은 “군주의 도가 밝음을 잃고 陰陽이 [모두] 혼미해져 신하가 음모를 꾀하게 된다”거나, “아랫 [사람들이] 형벌을 마음대로 하니 이것이 [곧, 군주의] 권위가 나뉘어짐을 말하는데, [해를] 가리는 것이 미약 할지라도 해가 밝[게 빛나]지 못한다”고 풀이되었다.⁴⁰⁾ 과연 그 전에 왕돈(王敦)이 여러 신하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으며, 마침내 왕돈이 반란을 꾀하다가 토벌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제 때의 사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때 햇무리는 겹으로 나타나 해의 양쪽에서 귀고리 모양을 형성했는데, 3개의 해가 동시에 비추고 무지개가 하늘 전체에 뻗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서진이 망하고 새로운 동진 왕조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유충(劉聰)과 이웅(李雄)이 삼국시대 조조(曹操)와 유비(劉備)의 땅을 차지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된 일로 해석되었다. 이런 해석은 3개의 해가 동시에 출현한 것을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져 병란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일로, 햇무리가 겹으로 나타나는 것을 새로운 제왕의 등장으로, 햇무리가 귀고리 모양을 형성한 것을 새로운 제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⁴¹⁾

해에 흑기(黑氣)가 나타났다는 현상은 모두 3번 기록되어 있는데,⁴²⁾ “검은 것은 陰이다. 신하가 군주의 잘못을 감싸지 못하여 아랫 [사람들이] 보게 하였으니 백성이 군주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이변이 생긴다” 또는 “신하 가운데 군주의 현명함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사(占辭)만이 실려 있을 뿐,⁴³⁾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해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에 흑자(黑子)가 나타나는 현상은 십휘 가운데 제일 자주 기록되었으며, 또한 중요한 사건과 직접 연결지어 해석된 경우도 많다. 그 가운데 성제 함강 8년과 목제 승평 3년의 흑자는 황제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특히 주목을 끈다. 그밖의 흑자 역

40) 『晉書』 「天文志」, 344쪽, “占曰 ‘君道失明 陰陽昏 臣有陰謀’. 京房曰 ‘下專刑 茲謂分威 蒙微而日不明’”.

41) 『晉書』 「天文志」, 343쪽, “占曰 ‘白虹 兵氣也. 三四五六日俱出並爭 天下兵作 王立亦如其數’. 又曰 ‘三日並出 不過三旬 諸侯爭爲帝. 日重暈 天下有立王. 暈而珥 天下有立侯’”. 여기에서 ‘王立亦如其數’는 원래 ‘丁巳亦如其數’로 되어 있는데, 358쪽, 校勘記 [24]에 의해 ‘丁巳’를 ‘王立’으로 바로 잡아 이해했다.

42) 惠帝 永康 원년 12월; 太安 원년 11월; 永興 원년 11월.

43) 『晉書』 「天文志」, 342쪽, “京房易占曰 ‘黑者陰也 臣不掩君惡 令下見 百姓惡君 則有此變’. 又曰 ‘臣有蔽主明者’”.

시 군주와 밀접히 연결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목제가 유약하여 오래도록 국정을 돌보지 못한 상황, 효무제 때 강헌(康獻)황후가 형수의 신분으로 섭정을 하고 회계왕(會稽王) 사마도자(司馬道子)가 황제의 동생으로서 정치에 간섭하게 된 일도 흑자로 설명했다. 그리고 원제 때 황제가 총애하던 신하 유외(劉隗)가 위압과 특혜를 멋대로 행사하여 군도(君道)를 해치게 되고, 그것을 핑계로 왕돈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위협하면서 그 화가 충신과 현신(賢臣)에 미치게 된 일도 흑자로 설명한 사건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원제가 친히 죄인들을 심문한 일도 군도에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 흑자의 출현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혜제 원강 9년과 회제 영가 5년에 나타난 해 가운데 날아다니는 제비와 같은 것이 있는 현상(日中有若飛鷲者)도 흑자와 유사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혜제 때의 경우는 민제와 회제가 폐위되어 죽을 징조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해에 흑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해의 흑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⁴⁴⁾ 『진서』 「천문지」에서는 그 크기를 계란, 오리알, 오얏나무나 복숭아의 열매 등에 비유하여 밝히기도 했으며, 흑자의 갯수를 말한 경우도 있다.⁴⁵⁾

심취에 속하는 현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현상 외에도 다음과 같이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사례가 몇 가지 더 있다. 첫번째는 무제 태강 원년 정월 기축(己丑)일 초하루의 기록이다. 이 때 오색의 기가 해를 위에서 덮었는데, 그것이 묘(卯)에서 유(酉)의 방향에 이르렀다. 이는 군도(君道)가 밝음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축일은 28수 가운데 두(斗)수와 우(牛)수에 해당하니 분야설에 따라 오(吳), 월(越) 지역의 일로 풀이되었다. 실제로 당시 오나라의 손호(孫皓)가 매우 포악하여 4월에 항복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두번째는 안제 의희 7년의 기록이다. 이 때 다섯 무지개가 동쪽에 나타났는데, 천자가 쫓겨날 징조로 풀이되었다. 그 후 실제로 유유가 진(晉)을 대신하여 송(宋)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세번째는 안제 의희 10년의 기록이다. 이 때 해는 동정(東井)에 있었으며, 10여 장이나 되는 흰 무지개가 남쪽에서부터 해까지 드리웠다. 이것은 재앙이 진(秦) 지역에 일어날 것으로 후진(後秦)이 멸망할 조짐이었다고 한다.

44) 北京天文臺 主編, 『中國古代天象記錄總集』, 3-5쪽이나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435-436쪽에서는 黑氣도 흑점으로 취급하였는데, 그것이 정말로 흑점을 말하는 것인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45) 穆帝 永和 10년 10월(鷄卵); 穆帝 永和 11년 3월(桃, 2); 穆帝 升平 3년 10월(鷄卵); 海西公 太和 5년 2월(李); 孝武帝 寧康 元년 11월(李); 孝武帝 寧康 2년 3월(鴨卵, 2); 孝武帝 寧康 2년 11월(鷄卵); 孝武帝 太元 13년 2월(李, 2); 孝武帝 太元 14년 6월(李). 여기에서 괄호 안은 黑子의 크기와 갯수임.

지금까지 살펴본 십휘 현상은 혹자를 제외하면 사실 해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기상 현상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서』『천문지』의 앞 부분 즉,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을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십휘를 운기(雲氣), 잡기(雜氣)와 함께 다루면서, 그 현상을 주로 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진서』『천문지』가 십휘를 일식 항목에 포함시켜 다루었을지라도, 십휘가 일식과는 다른 종류의 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십휘 역시 군주를 상징하는 해에 관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해야만 했던 것이다.

4. 달에 관한 다양한 현상

(1) 月變

『진서』『천문지』는 “달은 太陰의 精으로 해와 짝을 이루어 女主의 象을 나타낸다. 德으로 비교하면 형벌의 뜻이고, 조정에서 열거하면 제후와 대신의 무리”⁴⁶⁾라고 설명하였는데, 사전사협에서 달에 관한 현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달 자체와 관련된 변화(月變), 달이 행성을 가리는 현상(月掩犯五緯), 달이 항성을 가리는 현상(月犯列舍)의 세 가지이다.

월변에 속하는 것은 달무리, 월식, 초하루에 달이 나타난 것, 달에 이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등으로, 기록된 사례는 6번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월식은 대인(大人)의 우환이나 귀인(貴人)의 죽음을 예고한다는 점사만 있을 뿐,⁴⁷⁾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되지는 않았다. 달무리에 관한 점사는 여러 가지인데,⁴⁸⁾ 그것으로 해석된 사건은 위(魏) 문제가 죽고 명제가 즉위하여 천하에 사면을 크게 실시한 일과 환온이 황제를 폐위한 일 등이다. 달에 이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천자에게 적신(賊臣)이 있고 신하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풀이되었는데,⁴⁹⁾ 이는 환현이 반란하여 제위를 찬탈할 조짐으

46) 『晉書』『天文志』, 318쪽, “月爲太陰之精 以之配日 女主之象 以之比德 刑罰之義 列之朝廷 諸侯大臣之類”.

47) 『晉書』『天文志』, 346쪽, “孝懷帝永嘉五年三月壬申丙夜 月蝕 既. 丁夜又蝕 既. 占曰 ‘月蝕盡 大人憂’. 又曰 ‘其國貴人死’”. 한편, 이 사례는 중국에서 월식을 구체적 사건이 일어날 조짐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최초의 분명한 문헌자료에 해당한다.

48) 『晉書』『天文志』, 346쪽, “有大喪 赦天下”, “王者惡之”, “主憂 財寶出”, “月暈 有赦”.

49) 『晉書』『天文志』, 346쪽, “月生齒 天子有賊臣 羣下自相殘”.

로 해석되었다. 이런 사례를 종합하면, 월변에 대한 해석이 앞에서 소개한 달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 즉, 달을 여주(女主), 제후, 대신에 비유하는 관념을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2) 月掩犯五緯

달이 행성을 가리는 현상은 주로 달이 행성을 가리는 것을 말하지만, 반대로 행성이 달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진서』 「천문지」는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무릇 달이五星을 蝕하면 그 나라는 모두 망한다. [달이 가리는 행성이] 歲[星]이면 饑[饑]으로, 熒惑이면 亂으로, 填[星]이면 죽임으로, 太白이면 強國 사이의 전쟁으로, 辰[星]이면 女亂으로 [망한다]. 무릇五星이 달에 들어가면, 歲[星]이면 그 分野의 宰相이 쫓겨나고, 太白이면 將軍이 죽음을 당한다.⁵⁰⁾

이 원칙의 대강은 사전사항에서 달이 행성을 가리는 사례를 기록하기에 앞서서도 밝히져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달이 하나의 행성을 가리는 사례는 먼저 그 현상이 일어난 기록이 제시되고, 이어서 그에 따른 점사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 현상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당시 알려진 행성은 세성(歲星), 형혹(熒惑), 전성(填星), 태백(太白), 진성(辰星) 등의 다섯 개이므로, 달이 행성을 가리는 현상 역시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성에 관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를 통해 달이 세성을 가리게 되면 주로 기근이 발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내용의 점사가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했던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례 8은 “賊臣이 군주를 살해하고자 하고, 3년 이내에 반드시 내란이 있을 것”⁵¹⁾으로 풀이되었으니, 기근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 현상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가뭄, 홍수, 충해는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요(翟遼)가 사주(司州)와 연주(兗州)를 근거지로 대군을 이끌고 주변을 토벌하여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과 모용영(慕容永)이 병주(并州)와 기주(冀州)를

50) 『晉書』 「天文志」, 321쪽, “凡月蝕五星 其國皆亡. 歲以饑 熒惑以亂 填以殺 太白以強國戰 辰以女亂. 凡五星入月 歲 其野有逢相 太白 將僂”.

51) 『晉書』 「天文志」, 349쪽, “占並同上[賊臣欲殺主 不出三年 必有內惡]”.

침략하여 차지했다는 것은 직접 기근과 관련짓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리고 사례 17의 “천하에 큰 喪이 있을 것”⁵²⁾이라는 풀이도 달이 세성을 가렸을 때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결국 달이 세성을 가린 현상에 대한 해석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구체적인 점사였다. 그리고 이 현상과 연결지어 발생한 사건 역시 점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달이 歲星을 가린 사례

번호	연호	年號 年-月	所在	占辭	사건
1	元帝	太興 4-12	房	其國兵饑 人流亡	王敦作亂/劉隗 奔, 百姓困難
2	成帝	咸康 5-4	胃	國饑 人流	
3		5-4	昴		敗, 百姓流亡萬餘家
4	穆帝	永和 8-12	東井	秦饑 人流亡	兵革連起
5		升平 1-11	房	人饑/豫州有災	
6		2-閏3	房	同上	豫州刺史敗
7	哀帝	興寧 3-1	參	參 益州分也	益州刺史卒/叛-討伐
8	孝武帝	太元 14-12		賊臣欲殺主 ……	兵亂(司·兗, 并·冀)/旱/大水/蝗
9		19-4	尾	爲饑 燕國亡	慕容垂死 後燕衰亡
10	安帝	隆安 1-6	東壁	爲饑 衛地有兵	慕容寶 魏 討伐 敗/桓玄 舉兵
11		4-10	北河	爲饑 胡有兵	兵亂-死/太皇太后崩/饑死, 散亡
12		元興 3-2	角	天下兵起	劉裕舉兵 桓氏滅
13		義熙 7-6	畢	有邊兵 且饑	
14		7-8	參	益州兵饑	朱齡石 蜀 討伐
15		8-1	畢	同上	朱齡石 蜀 滅
16		12-5	角	爲饑	
17	恭帝	元熙 1-7		天下有大喪	

* 대부분의 경우 실제 일어난 사건은 더욱 복잡하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만 열거한다.

52) 『晉書』 「天文志」, 351쪽, “占悉同上[天下有大喪]”.

달이 세성을 가린 현상에 대해 제시된 점사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현상이 일어난 위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달이 세성을 가리는 위치가 동정(東井)이면 진(秦), 방(房)수면 예주(豫州), 삼(參)수면 익주(益州), 미(尾)수면 연(燕), 동벽(東壁)이면 위(衛) 지역의 일로 풀이되었다. 예외적으로 필(畢)수의 경우에는 필수가 변방의 병란을 뜻한다는 상징 관계가 적용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달이 세성을 가린 사례의 점사에는 분야설이 적용되었다. 이런 모습은 달이 다른 행성을 가렸을 때의 사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이처럼 달에 관한 현상의 풀이에서 분야설이 빈번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일식 사례에서 분야설의 적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과 대비되는 특기할 만한 점이다.

달이 세성을 가린 현상을 통해 설명된 사건 역시 대부분 분야설에 따라 정해진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의 유형은 예외적으로 태황태후 이(李)씨의 죽음(사례 11)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병란과 그 결과 왕, 자사(刺史), 장군 등 그 지역 책임자의 신변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열거되었다. 여기에 기근이 들어 백성이 유망(流亡)하거나 곤란을 겪게 되는 일도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절의 변화 및 농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세성의 특징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달이 세성을 가린 사례는 17번이지만, 다른 행성을 가린 사례는 그보다 적다. 『진서』 「천문지」에 기록된 달이 행성을 가린 사례는 총 45번으로, 형혹을 가린 경우가 4번, 전성을 가린 경우가 9번, 태백을 가린 경우가 14번, 진성을 가린 경우가 1번이다.

달이 형혹을 가린 현상은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난으로 나라가 망할 조짐이다. 실제 해서공 태화 원년 2월의 사례는 부견(苻堅)에 의해 전연(前燕)이 망하게 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안제 원흥 2년 11월의 사례는 제위를 찬탈했던 환(桓)씨 무리가 유유에 의해 모두 주살된 사건으로 해석되었는데, 사실 환씨 무리는 모두 주살되지도 않았으며, 환씨를 정통으로 보고 유유를 반란자로 보지 않은 이상 난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사례는 아니다. 또한 위(魏) 명제 경초 원년 10월의 사례 역시 사도(司徒) 한기(韓暨)의 죽음으로 해석되어 잘 들어 맞지 않는다. 이처럼 달이 형혹을 가린 현상에 대한 해석은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과 잘 들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전성, 태백, 진성의 경우를 모두 검토해도, 형혹과 마찬가지로 천문 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달이 행성을 가린 현상에 대한 해석은, 세성의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그 원칙과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달이 전성, 태백, 진성을 가린 사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번밖에 없는 달이 진성을 가린 경우이다. 이 현상은 안제 원흥 원년 4월에 일어났는데, 큰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오히려 달이 세성을 가렸을 경우에 적당한 해석이다. 다음으로 달이 행성을 가렸을 때, 그것을 황제의 죽음과 관련지어 해석한 경우이다. 즉, 목제의 죽음은 달이 전성을 가린 것으로, 위(魏) 명제와 혜제 그리고 안제의 죽음은 달이 태백을 가린 것으로 예고되었다.⁵³⁾ 이것으로 보아 달이 행성을 가린 현상도 때로는 일식이나 흑자와 같이 황제의 죽음을 예고할 정도로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달이 행성을 가린 마지막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恭帝 元熙 원년] 12월 丁巳일. 달이 羽林에서 태백을 가렸다. 2년 6월 황제가 제위를 양보하고 宋에 선양하였다.⁵⁴⁾

일단 진(晉)의 멸망과 그 뒤를 이어 송(宋)의 개국을 달이 태백을 가린 현상으로 해석한 것이 주목된다. 대체적으로 달에 관한 현상은 해에 관한 현상보다 비교적 정치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건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일식을 통해서도 예고되었던 진의 멸망이라는 큰 사건을 달이 행성을 가린 단 한 번의 현상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또한 달이 태백을 가린 위치를 우림(羽林)이라고 한 것도 독특한 기록이다. 우림은 천군(天軍)이라고도 불리며 영실(營室)의 남쪽에 위치하는 45개의 별로 이루어진 큰 별자리이다.⁵⁵⁾ 달이 행성을 가린 위치뿐 아니라 천문 현상이 일어난 위치를 대개 28수를 통해 밝혔던 것에 비해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⁵⁶⁾ 아마도 황실을 직접 지키는 군대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그 황실의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 연결지어 해석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행성이 달에 들어간 현상은 달이 행성을 가린 현상에 비해 더 적게 일어난 것으로 기록

53) 이와 관련하여 달이 행성을 가린 현상으로 제후의 죽음(薨)을 설명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사례는 앞에서 언급했던 魏 明帝 景初 원년 10월 달이 형후를 가렸을 때의 司徒 韓暨의 죽음과 安帝 義熙 원년 10월 달이 전성을 가렸을 때의 司徒 揚州刺史 王謐, 太保 武陵王 司馬遵, 左僕射 孔安國의 죽음 등이 있다.

54) 『晉書』 「天文志」, 351쪽, “[恭帝元熙元年]十二月丁巳 月凡太白于羽林. 二年六月 帝遜位 禪宋”.

55) 『晉書』 「天文志」, 305쪽, “羽林四十五星 在營室南 一曰天軍”.

56) 달이 행성을 가린 위치를 28수 이외의 별자리로써 설명한 경우는 이밖에도 安帝 隆安 원년 6월 달이 太微端門 밖에서 태백을 가렸다는 것과 같은 해 10월 달이 北河에서 세성을 가렸다는 것 등 2번 더 있다.

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총 9번으로 태백의 경우가 5번, 형혹의 경우가 2번, 세성과 진성은 각각 1번씩이고, 전성이 달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없다. 이 가운데 성제 함강 원년 2월의 경우는 태백이 달에 들어갔다는 기록만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를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성이 달에 들어간 현상에 대해 점사만 소개되어 있을 뿐, 그것과 연결된 구체적 사건이 없는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세성이 달에 들어갔던 혜제 태안 2년 사례와 태백이 달에 들어갔던 혜제 태안 2년 12월, 성제 함강 6년 2월의 사례가 있다. 이것은 각각 “나라에 재상이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 “천하에 병란이 있을 것”, “군주가 죽을 것”으로 풀이되었는데,⁵⁷⁾ 세성의 경우는 천문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꼭 들어맞는 것이지만, 태백의 경우는 그 원칙과 다르다. 그리고 태백이 두(斗)수의 위치에서 달에 들어갔던 원제 태흥 3년 12월의 사례는 곽박(郭璞)의 “달은 [八卦의] 坎에 속하는 것으로 陰의 공간이고 法의 상징이다. 태백은 [五行 가운데] 金行으로 [달을] 따라와서 달을 犯하였으니, 하늘의 뜻이 ‘刑의 理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그 法을 훼손하였다’라고 말하는 듯하다”⁵⁸⁾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 곽박은 『장서(葬書)』를 통해 풍수지리설을 체계화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그를 통해 음양오행의 이론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두 번째는 점사는 없고 구체적 사건만 들어 있는 경우이다. 이런 예는 위(魏) 제왕 가평 원년 정월 태백이 달을 엄습했다는 기록으로, 당시 태부(太傅)였던 사마의가 실권자였던 영녕(永寧)태후에게 정치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조상(曹爽) 등을 폐할 것을 주청한 일로 해석되었다. 세 번째는 점사와 사건이 함께 나와 있는 경우로 모두 효무제 때에 일어난 사례이다. 그것을 순서대로 열거해 보자.

(1) 태원 12년 2월 형혹이 달에 들어갔는데, “亂臣이 죽게 되거나 혹은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 또는 “외척이 정치를 하여 천하가 어지러울 것”으로 풀이되었다.⁵⁹⁾ 이 때 왕국보(王國寶)가 외척(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琅邪王 司馬道子의 妃의 사촌형)으로서 총애를 받았다. 또 진군(陳郡) 출신의 원열(袁悅)이 사육을 채우기 위해 군주 및 대신들과 사귀다가 급기야 봉당을 만들게 되었는데, 결국 황제가 그를 죽였다. 당시 군주와 재상 사이가 벌어졌으며, 난이 줄줄이 일어났다.

(2) 태원 13년 12월 진성이 위(危)수의 위치에서 달에 들어갔는데, “賊臣이 군주를 살해하고자 하고, 3년 이내에 반드시 내란이 있을 것”⁶⁰⁾으로 풀이되었다. 이후 모용수(慕容垂,

57) 『晉書』「天文志」, 347-348쪽, “國有逢相”, “天下有兵”, “人主死”.

58) 『晉書』「天文志」, 347-348쪽, “月屬坎 陰府法象也. 太白金行而來犯之 天意若曰 刑理失中 自毀其法”.

59) 『晉書』「天文志」, 347-348쪽, “有亂臣死 若有相戮者”, “女親爲政 天下亂”.

後燕 武帝), 적요(翟遼, 苻堅의 장군), 요장(姚萇, 後秦 황제), 부등(苻登, 前秦 황제), 모용영(慕容永, 西燕 황제) 등이 군사를 일으켜 실력을 겨루게 되었다.

(3) 태원 18년 정월 형혹이 달에 들어갔는데, “우환이 宮中에 있으니 해치는 도둑(賊)이 아니면 훔치는 도둑(盜)이다” 또는 “亂臣이 있거나 살육이 있을 듯하다”⁶¹⁾라고 풀이되었다. 21년 9월 효무제가 갑자기 내전에서 죽었는데, 부인 장(張)씨가 몰래 대역(大逆)을 범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또 간사하고 교활했던 왕국보가 마침내 형을 받았다. 이런 예들은 비록 행성이 달에 들어갔을 때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꼭 들어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제시된 점사에는 잘 부합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달이 행성을 가리거나 행성이 달에 들어간 현상은 『진서』 「천문지」에서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천문 현상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원칙은 이미 『사기』 「천관서」에서 제시되었다.⁶²⁾ 하지만 이 현상이 실제로 기록된 것은 『한서』에서 2번, 『후한서』에서 1번뿐이다.⁶³⁾ 그것을 『진서』 「천문지」는 총 54번에 달할 만큼 꼼꼼히 기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달과 행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진서』 「천문지」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月犯列舍

달이 항성을 가리는 현상은 달이 행성을 가리는 현상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현상은 오행성이 항성을 가리는 경우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사전사험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진서』 「천문지」 전체로 따져도 3분의 1 가량이나 되는 분량이다. 『진서』 「천문지」에 기록된 달이 항성을 가리는 현상은 180여 번에 달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례가 대개 비슷한 유형으로 풀이되었으며, 그에 따라 해석된 사건의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사례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을 지적하고

60) 『晉書』 「天文志」, 349쪽, “賊臣欲殺主 不出三年 必有內惡”.

61) 『晉書』 「天文志」, 347-348쪽, “憂在宮中 非賊乃盜也”, “有亂臣 若有戮者”.

62) 『史記』 「天官書」, 1332쪽, “月蝕歲星 其國亡. 熒惑也亂 填星也下犯上 太白也強國以戰敗 辰星也女亂”. 이 내용은 填星의 경우만이 다를 뿐, 앞서 인용했던 『晉書』 「天文志」의 해석과 거의 같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 역시 다른 천문 현상과 마찬가지로 『晉書』 「天文志」가 기본적으로 『史記』 「天官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3) 『漢書』 「天文志」, 1308쪽, “[孝宣] 地節元年正月戊午乙夜 月食熒惑 熒惑在角亢”; 1310쪽, “[孝成建始四年] 十一月乙卯 月食填星 星不見”; 『後漢書』 「天文志」, 3231쪽, “[孝明永平] 十五年十一月乙丑 太白入月中”.

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례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A) 成帝 咸和 6년 정월 丙辰일. 달이 南斗에 들어갔다. (B) 占에서 말하기를 ‘병[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C) 이 달에 石勒이 襄와 武進 두 縣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현을] 빼앗았다. 다음 해에는 石勒의 무리가 또 南沙와 海虞 지역을 노략질하여 빼앗았다.⁶⁴⁾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 사례도 달이 항성을 가린 현상(A)과 그 현상에 대한 풀이인 점사(B),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지상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C)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에서 때로는 점사나 사건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이 함께 제시되면서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상—점사—사건의 순서로 이루어진 구성 방식은 『진서』 『천문지』를 포함하여 고대 중국의 천문 사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서술 형태이다.⁶⁵⁾ 달이 항성을 가린 사례에서 (A) 현상의 유형은 항성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그 안에는 28수를 비롯하여 그 주위에 있는 헌원(軒轅), 천관(天關), 상장성(上將星) 등 다양한 별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히 별자리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房)수의 남쪽 두번째 별’과 같이 그 별자리에서도 특정한 별을 지정하여 그것을 가렸다고 하는 기록도 자주 나온다.

(B) 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나라에 우환이 있을 것이다’, ‘병란이 발생할 것이다’, ‘제후, 재상, 장군 등이 죽을 것이다’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지만 특별히 달이 가린 항성의 고유한 상징을 고려하여 풀이한 경우도 적지 않다.⁶⁶⁾ 예를 들어 달이 심(心)수를 가렸을 때는 ① 분야설에 따라 예주(豫州)의 일로 풀이하거나, ② 심수가 천왕(天王)의 자리를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달이 심수를 가리면 왕자(王者)가 그것을 싫어한다, ③ 심수의 전성(前星)이 태자를 상징한다는 생각에서 태자에게 우환이 있을 징조 등으로 풀이하였다.⁶⁷⁾ 여귀(輿鬼)는 ① 분야설에 따라 진(秦) 지역의 일로 풀이하거나, ② 전령(錢令)에

64) 『晉書』 『天文志』, 370쪽, “成帝咸和六年正月丙辰 月入南斗, 占曰 ‘有兵’, 是月石勒殺略襄武進二縣人, 明年石勒衆又抄略南沙海虞”.

65)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식 사례의 경우, 대부분 占辭는 없다. 그것은 일식이 군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각각의 일식마다 점사를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66) 28宿를 중심으로 하는 별자리의 상징에 대해서는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75-94쪽, 특히 90-93쪽의 <표 6>을 참고할 것.

67) ① 穆帝 永和 6년 2월; 孝武帝 寧康 원년 정월; 安帝 義熙 원년 3월; 義熙 2년 2월, ② 魏 文帝 黃初 4년 3월; 黃初 4년 12월; 穆帝 永和 10년 2월; 海西公 太和 6년 閏月; 安帝 義熙 5년 10월, ③ 魏 明帝 景初 2년 2월; 景初 2년 5월; 孝武帝 太元 16년 11월.

관한 일, ③ 질병에 관한 일 등으로 풀이하였다.⁶⁸⁾ 묘(昴)수는 하늘의 귀와 눈으로 서쪽과 옥사(獄事)를 관할하며 또한 깃대 장식(旄頭)이나 호성(胡星)에 해당하는데,⁶⁹⁾ 주로 호성을 뜻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대개 호(胡)와 관계된 일로 풀이하였다.⁷⁰⁾ 한편, 필(畢)수의 경우는 달이 필수에 들어가면 많은 비가 내릴 징조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⁷¹⁾ 그러나 실제로는 변방에서 병란이 발생할 징조나, 또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해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풀이하였다.⁷²⁾ 그밖에 28수 이외의 별자리 중에서 현원(軒轅)은 여주(女主)의 일로 풀이하였고(魏 명제 태화 5년 11월), 건폐(建閉)는 화재가 발생할 징조로 풀이하였다(魏 명제 청룡 4년 7월).

달이 항성을 가렸을 때, (C)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유형은 (B) 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심, 여귀, 묘, 필, 현원, 건폐 등 항성이 가진 고유한 상징을 고려한 점사가 제시되었던 사례의 경우, 그에 걸맞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달이 항성을 가린 사례는 주로 병란과 재상이나 장군 등 중요한 인물에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조짐으로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병란에 관한 것으로는 위(魏) 소제 정시 4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달이 동정(東井) 가운데 월성(鉞星)을 가린 사례와 성제 함화 8년 3월 달이 남두(南斗)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다. 전자는 같은 달에 발생한 사마의가 제갈각(諸葛恪)을 토벌하여 그가 성(城)을 버리고 달아난 사건으로 해석되었으며, 후자는 석계룡(石季龍)과 석빈(石斌)이 함께 석생(石生)과 곽권(郭權)을 공격하여 멸한 사건 등으로 해석되었다. 장군과 재상의 죽음에 관한 예로는, 성제 함강 5년 7월 달이 방수 가운데 왼쪽의 별을 가렸던 현상을 ① 같은 달에 발생한 승상 왕도(王導)가 죽고 유빙(庾冰)이 뒤를 잇게 된 일, ② 8월에 발생한 태위(太尉) 치감(郗鑒)의 죽음과 면수(沔水)의 남쪽 주성(郗城)의 전투에서 패하여 백성 만여 가(家)가 유망하게 된 일, ③ 다음 해에 발생한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량(庾亮)의 죽음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조짐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

68) ① 安帝 義熙 6년 7월, ② 魏 少帝 正始 2년 9월: 正始 3년 2월, ③ 魏 明帝 青龍 2년 3월.

69) 『晉書』 「天文志」, 300쪽, “昴七星 天之耳目也 主西方 主獄事. 又爲旄頭 胡胡星也”.

70) 魏 少帝 正始 원년 4월: 正始 원년 10월: 成帝 咸和 8년 8월: 咸康 원년 3월: 穆帝 永和 5년 10월: 安帝 義熙 5년 2월.

71) 『晉書』 「天文志」, 302쪽, “月入畢 多雨”.

72) 畢宿는 邊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해친다는 직접적인 뜻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兵亂으로 풀이된 경우는 穆帝 升平 원년 6월: 升平 3년 8월: 升平 5년 9월: 升平 5년 9월: 升平 5년 10월: 安帝 義熙 11년 3월 등이고,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해칠 것으로 풀이된 경우는 成帝 咸康 8년 8월: 穆帝 升平 3년 8월: 升平 5년 10월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진서』 「천문지」는 달에 관한 현상을 매우 중시하였다. 월식이나 달무리 등 달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뿐 아니라 달이 운행하면서 행성이나 항성 등의 다른 천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땅 위의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물론 달의 운행과 그 변화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달에서 또는 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진서』 「천문지」부터라고 할 수 있다.⁷³⁾ 특히 달이 행성과 항성을 가리는 현상은 달에 관한 사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게 담겨 있지만, 『한서』와 『후한서』 등 이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이로써 ‘해와 짝을 이루는 달’⁷⁴⁾에 관한 사전사험의 뜻을 잘 갖추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5. 맺음말

앞에서 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진서』 「천문지」의 사전사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통해 『진서』 「천문지」의 천문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천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일식은 『진서』 「천문지」에서도 여전히 중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월식은 여전히 소략하게 취급되었다. 둘째, 일식을 직접 군주와 관련지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물론 이런 모습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서』 「천문지」에서는 그 연결이 더욱 강화되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일식을 황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 발생할 징조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셋째, 십휘, 달이 행성을 가리는 현상, 달이 항성을 가리는 현상 등이 『진서』 「천문지」에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전체 천문 현상에서 해와 달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고대 중국에서 천문 현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분야설의 적용에 큰 변화가 생겼다. 분야설은 달에 관한 현상의 해석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지만, 해에 관한 현상을 해석할 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다섯째, 천문 현상을 해석하는 일반적

73) 이 점은 『진서』 「천문지」에서 月變, 月奄犯五緯, 月五星犯列舍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74) 앞의 주 46) 참조.

인 원칙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진서』 「천문지」의 천문 사례에서 일식과 달이 세성을 가린 현상을 해석할 경우에는 비교적 그 원칙을 잘 따랐지만, 다른 현상을 해석할 경우에는 천문 현상을 해석하는 일반적 원칙보다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의 세계를 인간 세계와 직접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이런 모습은 『진서』 「천문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하늘에서 나타나는 여러 천문 현상을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땅 위의 인간 세상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조짐으로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이 꼭 하나의 천문 현상으로만 예고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당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보자. 먼저 진(晉)의 멸망이라는 큰 사건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일식을 통해서도 예고되었고, 달이 태백을 가리는 현상이나 초하루임에도 달이 보이는 현상도 이 사건이 발생할 조짐으로 해석되었다. 황제의 죽음이라는 사건 역시 일식, 흑자, 달이 전성이나 태백을 가린 현상 등 여러 천문 현상을 통해 예고되었다. 해서 공이 폐워진 사건의 경우 일식, 백홍관일, 햇무리, 달무리, 달이 심수 가운데의 큰 별을 가린 현상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을 통해 설명되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현상을 통해 예고되었던 것은 물론 당시 아주 많은 천문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하나의 현상은 원칙적으로 여러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⁷⁵⁾ 따라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천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비해 당시 천문 현상을 통해 설명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은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다.⁷⁶⁾ 따라서 여러 현상이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역사서에 들어 있는 천문 사례는 비록 그 당시에 기록된 사초에 바탕한 것일지라도, 하나의 현상과 그에 따른 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에 완성된 형태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은 이른바 ‘천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관한 일을 맡고 있었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이 여러 현상을 통해 설명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건이 그 만큼 더 중요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75) 예를 들어 달이 角宿를 가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달이 가진 상징인 女主-刑罰-諸侯-大臣과 角宿가 가진 상징인 天關 및 左角(角宿의 왼쪽 별)의 상징인 天田-刑, 右角(角宿의 오른쪽 별)의 상징인 將-兵 사이의 조합 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76)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천문 현상을 통해 설명한 사건은 주로 군주나 그 측근들의 신변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나, 군사적 행동을 동반한 정치적 격변 상황 등이었다.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은 전문가 집단 자신들의 권위와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천문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잘 들어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권위를 세울 수 있었으며, 하늘의 현상과 인간 세상의 중요한 사건이 직접 대응되었던 풍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